K리그1 36라운드 | 울산, 서울 꺾고 단독선두 유지

김보경 원샷원킬…그림같은 프리킥골

후반 36분 왼발 감아차기 승부 갈라
승점 78점 울산 14년만에 우승 기회
최용수 감독은 '울산 징크스' 또 못 깨

싸움에서 지고 기분 좋을 리는 없는 법. FC서울 최용수 감독은 "2년 동안이나 못 이겼다"며 씁쓸해했다. 상대는 울산 현대. 서울은 지난해부터 올 시즌 23라운드(7월30일)까지 6번의 맞대결에서 승리가 없다. 2무4패다. 최 감독은 "내년 도약을 위해서라도 징크스를 끊고 싶다"고 했다.

울산의 입장도 절박하다.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어렵게 우승 기회를 잡았다. 전북 현대와의 우승 레이스가 만만치는 않지만 35라운드까지 근소하게 앞서며 잘 버텼다. 서울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점 3을 추가해야 우승으로 가는 길이 조금은 편해진다.

'캡틴' 김보경(가운데)이 울산의 선두 굳히기에 앞장섰다. 울산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1 36라운드 FC서울전에서 후반 36분 터진 김보경의 프리킥 골로 1-0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승점 78을 기록한 울산은 "우승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기뻐했다. 득점 직후 세리머니 중인 김보경. 상암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서울과 울산은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36라운드에서 마주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승자는 울산이었다. 후반 36분 김보경의 프리킥 한방으로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울산은 승점 78(23승9무4패)을 마크하며 선두를 질주했다.

전반은 4-2-3-1 전술의 울산이 주도권을 잡았다. 특히 좌우 날개인 김인성과 김보경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효과를 봤다. 울산은 전반 7분 이상헌의 강력한 오른발 슛이 서울 골키퍼 유상훈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26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이상헌이 발로 툭 갖다대면 들어갈 정도의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지만,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크로스바를 넘겼다. 전반 30분에는 주민규의 오른발 터닝슛이 왼쪽 골대를 맞히는 불운까지 겹쳤다. 경고 누적으로 빠진 공격수 주니오의 공백이 커 보였다.

중앙 미드필드에서 강세를 보인 서울도 간간히 역습으로 상대 간담을 서늘케 했다. 전반 13분 주세종의 기막힌 스루패스를 받은 이명주가 울산 골키퍼 김승규와 마주하는 찬스를 맞았지만 무위에 그쳤다. 전반 39분에도 조영욱의 헤딩슛이 상대 수비벽에 막혔다.

후반 들어 양 팀은 비길 생각이 없었다. 어쨌든 승부를 보고 싶었던 탓에 후반 15분을 전후해 박동진(서울)과 황일수(울산)를 투입했다. 서울의 압박이 눈에 띄었다. 서울은 최전방부터 강력하게 몰아세우며 승부욕을 보였다. 후반 31분 알리바예프의 슛이 막힌 게 아쉬웠다.

울산의 한방은 무서웠다. 후반 36분 아크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김보경이 왼발로 절묘하게 감아 차 상대 골네트를 갈랐다. 이것으로 승부는 갈렸다.

울산 김도훈 감독 "우리 선수들의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아직 우승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다음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며 패인을 분석했다. 상암 |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허병길, 전북 현대 신임 대표이사에

허병길 대표

K리그1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은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판매사업부장 허병길 전무(57)가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허 신임 대표이사는 1987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판매추진실장, 지역본부장 등을 거쳐 2016년부터 판매사업부장을 역임했다. 전북은 고객과의 소통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허 신임 대표이사가 구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비롯해 팬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호 선발출전…권창훈은 후반 투입

독일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백승호(다름슈타트)와 권창원(프라이부르크)이 나란히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백승호는 2일(현지시간) 분데스리가2(2부 리그) 그로이터 퓌르트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서 후반 36분까지 활약했지만 팀의 1-3 패배를 막지 못했다. 권창훈은 같은 날 분데스리가1(1부 리그) 베르더 브레멘과의 원정경기 후반 39분 교체로 나섰다. 2달여 만에 그라운드에 설 기회를 잡은 그는 팀이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 2-2 무승부를 기록하는데 힘을 보탰다. 한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소속의 황희찬은 마테르스부르크와의 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전반 45분만 소화했다. 5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나폴리(이탈리아)와의 원정 경기를 고려한 조기 교체였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명물이 된 '대팍'…"우린 별다방과 경쟁관계"
〈DGB대구은행파크〉 〈스타벅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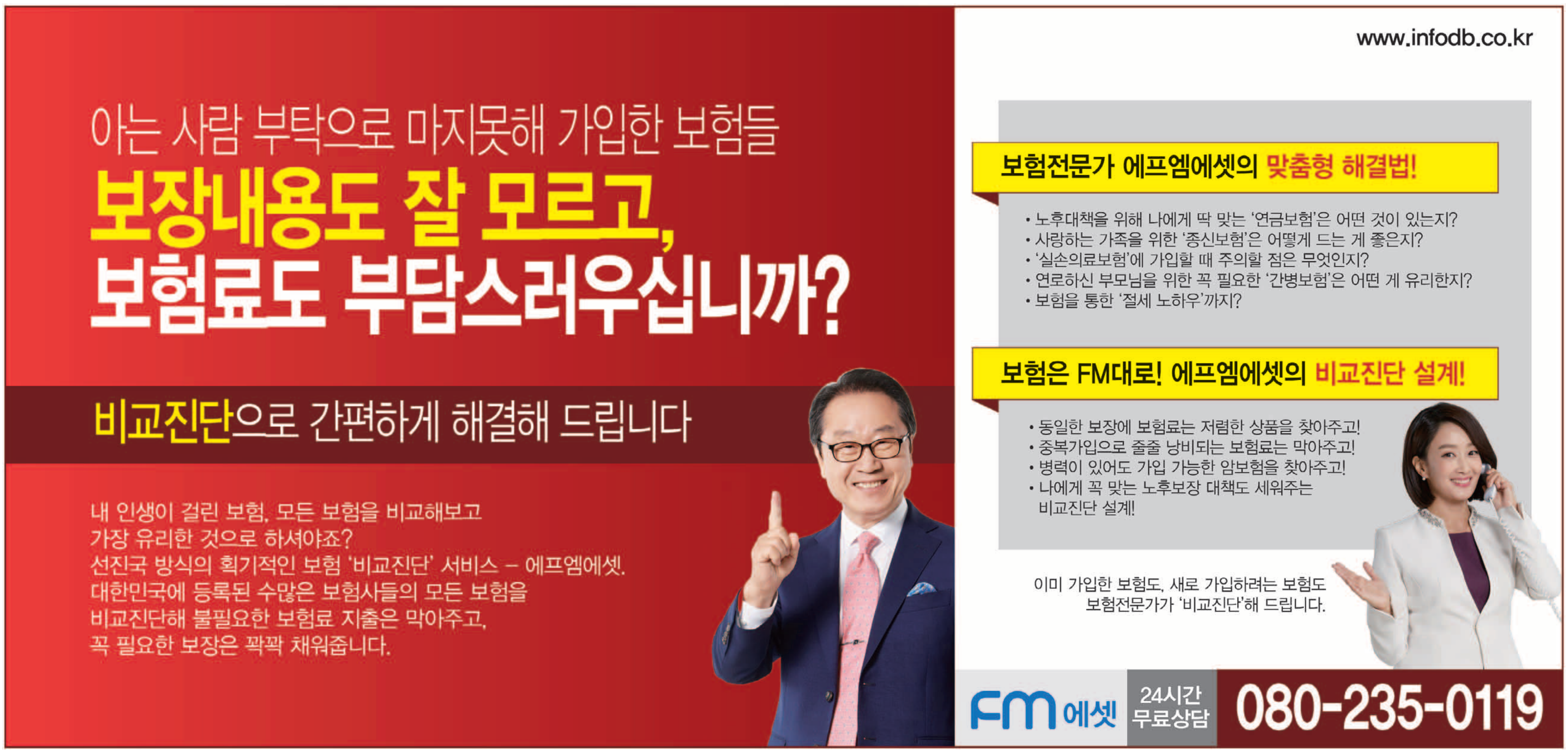
올시즌 8번째 매진 기록뿐만 아니라
헬러윈 이벤트 등 대구 문화 메카로

2019시즌은 시민구단 대구FC에게 특별한 시간이다. 당당한 걸음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지난해 구단 역사상 최초의 우승 트로피(FA컵)를 수확했고,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이하 ACL)에서 국제 경쟁력을 시험했다. 대회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거함'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를 꺾는 저력을 발휘했다.

그래도 가장 특별한 변화는 한국형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1만2000석 규모의 DGB대구은행파크(대팍)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한 이곳은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경기장에 입점한 식당들과 커피숍, 맥주집은 대구 유니폼을 차려 입은 가족 단위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주변에도 큰 규모의 상권이 형성돼 눈길을 끈다. 한 식당 종업원은 "매출이 많이 올랐다. 인근에서도 식당을 개업하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다"고 귀띔했다.

전북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36라운드가 열린 3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구는 킥오프를 5시간 앞두고 매진을 알렸다. ACL 포함해 올 시즌 8번째. 대구는 이전까지 17만9000여 관중을 불러 모았고, 경기당 평균 1만576명을 찍었다. 200만 관중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올해 K리그1에서 평균관중 1만 명을 돌파한 팀은 FC서울과 전북, 대구뿐이다.

대구 사무국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대구는 경기장을 '축구를 보는 곳' 이상의 의미를 불어넣자는 목표를 세웠다. 대구의 한 직원은 "우린 스타벅스와 경쟁 한다"고 얘기했다.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가격일지언정 차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주자는 뜻이었다.

끊임없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고 기획하는 배경이다. 대구는 전북전에서 '헬러윈데이'를 활용해 마스코트의 분장을 '조커' 형상으로 바꾸는 등 흥미로운 장내 행사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구 조광래 사장은 "올해는 정착기일 뿐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 우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꾸준한 진화를 약속했다. 대구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